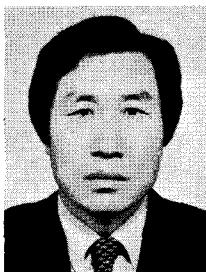


漁港施設

가꾸고, 활용해야



金允洙
(水產廳施設局施設課
行政事務官)

漁港現況

全國에 散在되어 있는漁港은 總1,941個港으로서 漁港法에 依拠 1·2·3種漁港으로 指定되어 1·3種漁港은 水產廳長이, 2種漁港은 市·道知事が 각각 管理하고 있으며 小規模漁港은 非指定漁港으로 市長·郡守가 管理하고 있다.

여기에서 言及하고자 하는 것은 規模가 큰 水產廳長管理漁港인 1·3種漁港에 對하여 管理上의 問題点과 改善方向에 關하여 說明하고자 한다.

■漁港施設 管理 維持

漁港法에는 1·3種漁港의 管理는 水產廳長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 水產施設 管理規定에 依拠하면 1·3種漁港은 當該地域의 地區別 水產業協同組合長이 管理代行者로서 漁港을 管理하고 있다.

地區別 水協長은 日常 使用上 漁港의 경미한 損壞를 補修하기 위하여 自体收支豫算書에 補修費豫算을 計上하여 執行하고 있으나, 그 額數가 微微할 뿐만 아니라 財政狀態가 좋지 못한 水協에서는 補修費豫算을 반영치 못하고 있는 곳도 있으며 颱風等 災害로 因한 漁港被害은 水產廳豫算으로 復旧하고 있다.

■漁港施設 使用 許可

漁港工事로 築造된 物揚場, 防波堤 등과 造成된 敷地는 國有財產으로 登記하여 管理하고 있으며, 漁港機能上 支障이 없는 餘裕施設 및 敷地에 대하여는 水產廳長의 許可를 얻어 漁港施設을 주로 水協이나 民間人이 活用하고 있으며 水協에서는 漁港法의 規定에 依拠して 使用料가 免료로 되고 있다. 漁港施設使用許可 現況은 表와 같다.

1·3種 漁港使用許可現況

市道別	漁港數	許可面積	許可件數	備考
計	34個所	110,784m ²	117件	委販場, 碎冰場, 共同倉庫, 紙油, 紙水施設, 水產物乾燥場等
釜山	1	9,101	5	
江原	5	9,753	14	
忠南	4	1,183	8	
全北	2	755	4	
全南	5	33,233	31	
慶北	5	41,593	23	
慶南	8	5,689	15	
濟州	4	9,477	17	

■漁港施設管理 上의 問題点

漁港施設의 事後管理가 疎忽하여 損壞된 漁港을 간혹 放置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漁港敷地를 無斷占用, 漁港內廢船放置등으로 漁港機能을 低下시키는 곳이 있으며, 새로 築造된 漁港과 奧地의 漁港에는 紙油施設, 冷凍·冷藏施設, 船需品供給등 機能施設이 不足한 곳이 있어 漁港을 利用하는 漁船隻數가 적고 어떤 漁港에는 漁船이 過密하게 利用함으로써 漁港利用의 效率性을 期하지 못하고 있다.

■漁港施設管理 改善 方向

短期에 措置하여야 할 事項으로서는 地區別 水協은 漁港을 利用하고 있으니 收益者 負担原則에 依拠 漁港施設 補修費를

確保, 日常 使用上 損壞에 대하여는 被害가擴散되지 않도록措置하여야 할 것이며 漁港施設의 無斷使用 및 漁港整備도 現地에서 監督을 철저히 하여 整備하여야 할 것이다.

長期의인 改善事項으로서는 漁港法 등의 關係規定을 改正하여 無斷占用에 대하여 強制할 수 있는 内容이 必要하고 漁港管理 代行者 또는 地方自治團體에서 漁港施設의 使用許可와 使用料를 직접 徵收하여 漁港管理費에 충당하는 方向으로改善되어 나아가야 할 것이며 漁港管理權도 完工된 漁港은 地方官廳으로 移管하여 效率의인 管理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제일 重要視되는 漁港施設의 未活用 問題는 巨額을 投資하여 建設한 漁港를 漁船이 利用 않는 것은 無用之物이며 國家의인 損失이다. 漁船待避漁港은 例外겠지만 漁船이 漁港에 뒹으면 잡은 고기를 揚陸시

키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與件이 되어야 하며 再次 出漁을 위한 船島島 등의 供給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漁港에는 紙油·紙水施設, 委販場, 冷凍工場 등 機能施設이 있어야 하는데 漁港에 漁船이 없으니 機能施設을 할 수 없고 施設을 해보아야 收支打算이 맞지 않아 維持가 안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落島나 奧地漁港에 民資로 機能施設이 들어설 수 없다.

水協에서 주관이 되어 政府에서 補助金을 받아 機能施設과 그 運營을 한다든가 당초 漁港修築을 할 때 基本的인 機能施設을 함께 施設할 것을 檢討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檢討는 水產廳이나 水協에서 보다는 第3者의인 立場에서 韓國漁港協會가 漁港別로 면밀히 調査·檢討하여 政策에 반영하도록 建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 맷는말

지금까지는 漁港施設이 不足하여 漁港建設에만 치중하여 왔지만 앞으로는 建設된 漁港의 事後管理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마치 산에 나무를 심고, 심은 나무를 정성들여 가꾸듯이 建設한 漁港을 잘 가꾸어 漁港施設의 效率의인 活用에 力点을 두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